

지역 메아리

완주군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완주군 종합복지관이 자격증 취득, 취미활동 등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20일 완주군은 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증 취득반인 한식조리가능사 등을 비롯해 교양·취미 분야 아쿠아로빅 등 실버 프로그램을 확대해 28강과 38개반 55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완주군민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무료이며, 일반인은 4개월분의 수강료 4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농기센터 농촌개발분과 심의회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에서는 2018년도 영농현장에서 실용적인 농업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농가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범사업 적격자 선정을 위한 농촌개발분과 심의회를 20일 열었다.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사업비 77억여원이 투자된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각 사업별 적격자를 선정함으로써 시범사업 효과가 최대로 발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치매재활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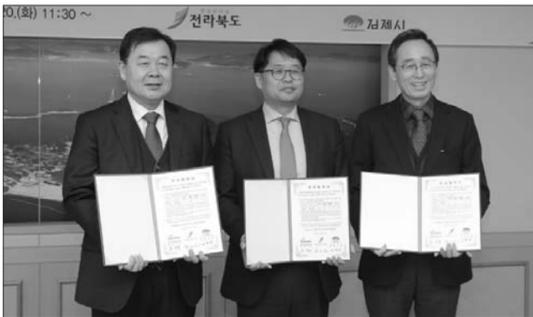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김제시에 등록된 75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및 치매환자에 대하여 2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월, 수 10:30~11:30 (총33회) 보건소 한방허브교실, 재활실 등에서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지재활프로그램에서는 치매환방법인 '두근두근 뇌운동'을 비롯해 △몸도 쪽쪽 기억력 쑥쑥, △하하 호호 웃음 광광 △꽃이야 나무야 등의 맞춤형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년 삶의 활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로당 등을 찾아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검진·교육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예방 및 기억력 향상 외에도 소외감 및 고독감을 줄여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기완성차 기업 김제시에 물꼬

김제시-아이티엔지니어링, 지평선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 체결



김제시는 20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전기완성차 생산업체인 ㈜아이티엔지니어링과 지평선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제시는 20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전기완성차 생산업체인 ㈜아이티엔지니어링과 지평선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이티엔지니어링 김석주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정호영 전북도의회 부의장,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등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국의 테슬라를 향해 가고 있는 ㈜아이티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로 고속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차량 개발에 성공한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지평선산업단지에 총 177,221㎡ (약 53,610평) 부지를 1차 8만2,311㎡, 2차 58,224.1㎡, 3차 36,685.9㎡로 연차적 투자를 진행하게 되며 1차 투자 규모는 800억원 투자에 100명을 신규 고용하여 2019년 공장시설을 완공하고 2020년부터 300여명까지 고용인원을 늘려 연 1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관련 국내 여러 기관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아이티엔지니어링의 지평선일반산업단지 투자 열기가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지평선 관련된 신산업이 바로 이곳 김제에서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이티엔지니어링 김석주 대표이사는 "당사의 이사회승인 및 자문단의 자문에 따라 새만금, 광역교통망,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등을 고려하여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확신하기에 투자를 결정 하였으며, 앞으로 전북도 및 김제시와 협력하여 당사의 꿈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1차 계약시 지평선일반산업단지는 80% 가까운 분양률을 달성하게 되며, ㈜아이티엔지니어링과 연관된 각종 전기차 부품 업체의 추가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 분양완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투자를 결정한 김석주 대표이사의 임직원 여러분께 김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아이티엔지니어링이 성공적으로 전기완성차 업계의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삼례 행복주택 올 상반기 착공

300세대 규모...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완주군 삼례읍에 들어설 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완주군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후보지 선정 이후 올 상반기 착공과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완주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후보지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7월 행복주택 선정 심의회에서 삼례 행복주택의 필요성 및 후보지 적정성을 검토해 심의회 위원 전

원 의결로 완주군 삼례 행복주택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11월말 설계를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의견청취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고 이에 지난해 12월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1월까지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전라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삼례 행복주택에는 300세대 규모에 총사업비 25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사업비는 정부재정 30%, 기금 40%, 나머지 30%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자 예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삼례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는 최근 신속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우석대학교, 삼례 터미널, 이전 예정인 삼례중·여중 부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완주산업단지와 익산으로의 교통도 편리해 최적지로 인정을 받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행복주택 공모사업 추진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미래의 꿈을 키우는 청년층의 주거불안 요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삼례 행복주택이 안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하는 도심형 아파트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광활햇감자 축제 일정 확정

4월 21일 광활초 일원서... 햇감자 우수성 알려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New Potato Festival)가 오는 4월 21일 김제시 광활면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는 전국 최고의 시설하우스 감자 주산단지인 광활에서 간척지와 해풍 등 천혜조건에서 자란 햇감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이다.

해마다 4월에 개최되어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행사로서 광활햇감자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시식코너와 시종가보 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감자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광활감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관

공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광활햇감자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간척지 토양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전국 불감자층 단연 으뜸을 자랑하고 있으며 매년 광활 햇감자 수확시기가 다가오면 전국각지에서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신광식 축제위원장은 "이번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가 광활면민과 출향인들에게는 친목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지평선광활햇감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한국흙건축학교 개설·운영

완주군 한국흙건축학교가 개설, 운영된다.

20일 완주군은 유네스코 석좌프로그램 한국흙건축학교가 오는 24일 흙건축 오픈세미나 '흙건축의 어제와 오늘'을 시작으로 2018년도 흙건축학교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흙건축 교육과정은 흙건축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실습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워크숍을 통한 집짓기 중심의 실습으로 기초부터 지붕까지 7~8평 규모의 마을 사람방 짓기 2개소를 선정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한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한 복지시설 리모델링도 4개소 정도 실시한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흙건축 교육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흙건축 장·단기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완주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흙건축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한국흙건축학교(063-714-4666)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과정은 완주군 로컬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한편 완주군 흙건축 교육은 지난 2013년도에 흙건축전문가 양성 및 지역주민의 건축기술을 함양시키기 위해 (사)한국흙건축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